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엄불선' <9>



칭명은 믿음 성취하는 방편

원효는 칭명이 금생에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순리발심하기 어려운 사람 혹은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이 성취되지 않은 사람이 행하는 엄불이므로 믿음을 성취하는 방편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칭명 엄불자는 일심의 바다에 나아가기 위해 우선 부처님이 말씀하신 성소작지(成所作智)를 믿고 명호를 불러야 합니다.

마침내 물러나지 않는다 하는가? 또한,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오면서 온갖 번뇌를 일으켜서 삼계에 묶여 갇혀 있고, 서로 얽혀 제아무리 있는데 어떻게 두 가지 번뇌를 끊지 않고 곧바로 심념만으로 삼계 밖을 벗어난다 하는가? 하며 의심한다.

'성소작지' - 굳게 믿고 명호 불러야 믿음 성취·발심 하고자 엄불수행

신다는 일이며, 일념만 명호를 부르면 다짐으로 쌓인 무거운 죄가 영원히 소멸되고, 심념으로 생각한 공덕은 능히 삼계 밖의 수승한 과보의 국토에 태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낮은 지혜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다(仰信). 왜냐하면 <경>의 말씀은 가히 자신의 알은 식견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35년의 전통이 어린 전등선림에서 좌선중인 불자들이.

"보살님, 요즘 공부 어떻게 하십니까?" "스님, 부끄럽지만 선방에 나오면 집안 일이 걱정이고, 집에 있으면 좌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일할 때는 일과 하나되어 정성껏 일하고, 절에 와서 좌선할 때는 모든 망상을 쉬고 화두만 챙기셔야죠."

초하루 법회가 열린 8월 16일 오후, 서울 성북동 전등사 전등선림(선원장 동명·오른쪽사진)의 지대방에서는 동명 스님과 한 보살과의 참선 지도점검이 이뤄지고 있었다. 30여 신도들이 선방에서 방선하는 시간에 이뤄진 수행점검은 우리가 상상하듯 엄격한 선문답이 아니라 평소 신도의 수행태도를 관찰한 스님의 자상한 상담으로 진행됐다.

"제대로 수행 과정을 밟지 않고 수행 소핑만 하다 이상(俄相) 높아져 잘못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근기 맞게 기도·간경·염불 접목

상설 재가 참선도량인 전등사는 현대의 선지식인 해안(海眼, 1901~1974) 스님이 '재가 불자들이 수행해야 한국불교의 희망이 있다'며 1967년 만든 '불교전등회'의 등불을 이어오고 있다. 1969년에 문을 열었으니 올해로 35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문을 열고 있는 드문 참선도량이다.

초심자, 상담→참회기도→입선

"공부가 익을 수록 그 사람의 언행이나 태도에서 변화가 나타나죠." 신도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을 쏟고 있는 동명 스님은 최근의 수행 풍토에 대해 "참선 공부에 꼭 필요한 것이 규칙적인 수행점검인데 이를 해 줄만한 눈 밝은 스승을 모시고 있는 재가선방이 드문 것이 현실"이라며

체계적으로 참선 지도점검하는 전등선림

"스님의 자상한 가르침 장군죽비 되어 정진"

나 저녁 9시까지 15시간 이상의 가행정진으로 이어진다. 20년째 화두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박인분(60, 지혜선) 보살은 "여러 도반들이 가정주부로서 고민이 적지 않지만 가정사 때문에 불참하는 경우는 없다"며 "스님의 자상한 지도가 든든한 장군죽비가 되어 흔들림 없이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등선림은 참선도량을 표방하지만 초심자들에게는 근기와 인연에 맞게 오히려 다양한 수행방법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 동명 스님은 초심자들의 경우 항상 상담을 거친 후 참회기도를 하고 선방에 입실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면담을 통해 신도들에게 맞는 기도, 간경, 염불 등을 권하며 발심의 기초를 다지게 한다.

매년 3개월과정 불교대학 운영

동명 스님은 참선에 앞서 불법에 대한 안목을 갖추도록 매년 한차례 3개월 과정의 불교교양대학을 개설, 신도 교육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당신이 14살 어린 나이에 동진 출가해 은사 해안 스님에게 받은 '은산철벽' 화두와 말없는 가르침을 회상하며 일상 자체가 수행이 되는, 언행이 일치하는 참 불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행, 실천을 겸비한 참 불자를 양성하려는 노력을 갖고 있다. 스님은 "참나를 찾아 일체 속박과 구속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 불자들의 궁극 목적"이라며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24시간이 일여(一如)하게 화두를 챙기라고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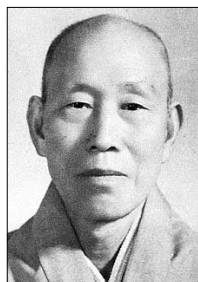
"거짓 나를 부수고 참나를 찾으면 속아서 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아서 늘 부족한 것도 없고 아무런 속박이 없이 자유자재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눈과 싸워서 눈을 항복받고, 귀와 싸워서 귀를 항복받고 내지 육근을 모두 항복받아야 해요. 그래서 필요한 수행이 화두 참구법입니다."

전등사=(02)762-0643

김재경 기자



해안 선사가 "7일안에 깨쳐라" 한 까닭은



"7일 안에 깨우치라"며 단기출가와 웅맹정진을 강조했던 해안 스님(사진)은 일찍부터 재가자들의 수행과 교육 여건 마련에 헌신했다. 그러나 "7일만에 깨칠 수 있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믿기 어려운 말로 비쳐지기도 한다. 해안 스님이 굳이 7일을 강조한 뜻은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미련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7일이면 도를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7일안에 깨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공부하는 사람의 정신자세가 철저히 못했기 때문이지, 기간이 짧아서 깨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해안집)

해안 스님은 자나 깨나 화두가 성성적적인 일여(一如)의 경지가 되면 1주일안에도 화두가 타파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스님은 "수행자는 오직 화두 일념에 사로잡혀 옆에서 뇌성벽력이 쳐도 듣지 못해야 하고, 찬 바람이 뼈속까지 스며들어도 추운 것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생명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그리하지 못했다"며 "크게 한번 죽는(大死一番) 용맹심을 절대적으로 강조했다."

"이 일을 성취하려면 한번 죽어야 합니다. 눈도, 귀도, 입도 죽어야 합니다. 단 7일간이니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해도 아주 죽지는 않습니다. 죽기로서 대들어 영원한 살 길이 열리지 아닐 피 살려고 매등대면 오히려 죽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결심으로 한다면 7일안에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요, 생사 일대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간(肝)이 간지방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형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다린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기마리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흰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한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고약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진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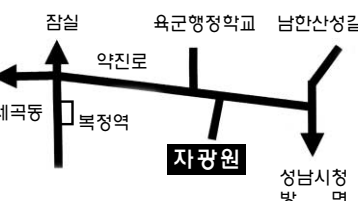


보살 염불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뒤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마음을 자광원에서 경영을 통하여 연이연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인력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 홀로계신 시아버님,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
- >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동동 116
- ◆ 대상: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분
- ◆ 정 원: 24명~30명 내외
- ◆ 시설개요: 본 건물 → 방규모(약 7명)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 입방비부담: 평생회원권 일반회원권으로 구분
- ◆ 자비부담
- ◆ 연락처: 전화 031) 759-5320 팩스 031) 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관절염에 "글루코사민사카트리지"

서울대 병원에서 효능A등급 제품으로 선정



주요성분 및 특징

- 제품의 내용량 글루코사민 사카트리지 180정(2개월분) × 3명
- 1정당 성분 및 함량 글루코사민 500mg, 상어연골분말(콘드로이틴황산) 400mg, 구연산칼슘 150mg, 비타민 C 75mg, 비타민B, 비타민D3, 토포페롤, 아연, 망간 등
- 섭취대상자 - 관절과 연골영양공급이 필요한 노약자, 갱년기 여성 - 무릎이 쑤시고 계단을 오르내릴때 불편하신 분 - 관절이 심한 통증과 뻣뻣함을 느낄때
- 관절염이란? 뼈에 영양을 공급해 뼈속이 좋아야만 낫는 병입니다.

글루코사민 사카트리지란?

- 미국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관절영양제
- 관절치료제인 기존의 글루코사민보다 효능을 높이기 위해 상어연골, 칼슘, 비타민, 아연, 망간 등 관절과 연골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한 복합제
-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상결과 그 우수한 효능발표 -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도 인정
- 연골의 파괴 효소를 막고 연골을 생성 촉진하는 제제
- = 복용시 =
- 2~3주후면 효과발현 시작
- 4~8주면 30~50% 호전 단계
- 6개월이면 90%이상이 만족
- * 글루코사민은 1일 1500mg을 6주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 서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 복용량은 몸무게에 맞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고시(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소비재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지(원산지): 미국 수입 원제품
- * 신용카드 구매 가능

상담문의: 080-631-4525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74번지 세종빌딩 3층 서부투상